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곳 고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선 '빨간풍차 과자점'



〈사진 1〉 점포 실내전경. 편안한 느낌의 갈색톤을 주로 사용했다.
 〈사진 2〉 하얀 벽면에 그려진 그림과 작은 등이 조화돼 이쁜 분위기를 연출한다.
 〈사진 3〉 빨간풍차의 각종 쿠폰. 가격대 별로 발행되는 쿠폰은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제작돼 '모은 재미'를 더해준다.
 〈사진 4〉 단순한 비닐 포장에 각각 색을 달리한 작은 리본으로 포인트를 줬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빨간풍차 과자점(대표 오민호)'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천에만 이미 6개의 분점을 내고있는 빨간풍차가 본점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점포확장과 함께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는 변신을 한 것.

이곳에서 4년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과기술인 출신 오민호 사장은 "앞으로 분점들도 통일된 인테리어로 꾸며 빨간풍차의 이미지를 심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고객들에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보다는 소박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것이 빨간풍차가 추구하는 이미지이다.

점포 내부는 그리 넓지 않은 장소를 실속있게 꾸며놓아 눈길을 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치는 곳에 중앙 매대를 설치하고 인기상품을 진열해 풍성한 느낌을 전하고 있으며, 부조처리된 벽에는 그림을 그려넣고 클래식한 느낌의 작은 등으로 장식해 하얀 벽면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의외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고객이 전체의 50%에 이르고, 제품의 판매비중도 선물용 세트류가 월등히 높아 앞으로 파이 제품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계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제품 구입시 가격대 별로 쿠폰을 제공하고 있어 고객들에게는 구입한 만큼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점포 매출증대에도 한 몫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제과점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빨간풍차. 앞으로 본격적으로 분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빨간풍차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취재·허윤정 / 사진·박경배〉

고정관념 깨는 신세대 베이커리 복합적인 공간활용이 돋보이는 곳 '서광석의 앙브레'

인천시 만수동에서 7년간 자리잡았던 제과점 그린비가 '서광석의 앙브레' (대표 서광석)로 새롭게 태어났다. 독특한 발상으로 점포 곳곳을 단장해 재오픈한 앙브레는 이미 고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선물용품 코너.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근처에 선물가게는 없어요?"라고 자주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힌트를 얻었다고 한다. 선물코너 반대쪽 벽면에 마련된 주류판매 코너도 앙브레만의 새로운 시도. 다른 제과점들이 저가 삼페인과 와인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급 양주의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앙브레에서는 이런 코너들을 이용해 이전보다 최소 50% 이상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고 판매율도 높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은 셈.

또한 고객들의 동선을 연구해 조금이라도 더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한 점포 구조 역시 흥미로운 점이다. 쇼케이스와 양주 코너를 같이 진열하고 계산대를 선물코너쪽에 두어 적어도 한번씩은 모든 제품들을 보게끔 고객들을 유도한다. 앙브레의 서광석 사장 내외는 "「제과점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어 점포 리뉴얼시 상당한 연구를 했다"고 전한다. 여러 가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앙브레. 인천지역에서 독특하고 신선한 느낌의 제과점으로서 앞으로도 그 인기가 계속될 듯 하다.

〈취재·허윤정 / 사진·박경배〉



- 〈사진 1〉 갖가지 인형과 액자, 액세서리 등 작고 귀여운 소품 위주로 꾸며진 선물코너는 고객들의 구매욕구를 높이고 점포 분위기도 색다르게 연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았다.
- 〈사진 2〉 고급양주가 많은 주류판매코너.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들리는 점을 포착한 주인의 센스가 돋보인다.
- 〈사진 3〉 공장 사이에 있는 유리를 1/3 정도만 남기고 꽃무늬 시트로 처리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 〈사진 4〉 계절 상품이나 기획 상품은 밝은 창가쪽으로 진열해 인퓌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했다.
- 〈사진 5〉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서광석 사장 부부 내외.

